

#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

이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면서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시스템(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AAFS)은 1차 농업(Primary agriculture), 농가 투입재시장(Farm input market), 식품 가공업, 식품 유통업, 도매, 소매, 그리고 식품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복잡한 공급 유통망(Supply chai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공급 유통 활동들은 캐나다 전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Provincial level)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2013년 농업과 농식품산업을 통해 총 1,069억 달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GDP의 6.7%를 차지한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식품 도매 및 소매 산업(Food retail and wholesale)이 전체 GDP의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식음료 및 담배 제조업(Food, beverage and tobacco, FBT)이 1.7%로 GDP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침체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22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8개 일자리 중 1개의 일자리가 농업과

\* (suhwan8352@krei.re.kr, 042-825-9553).

농식품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식품 서비스산업(Food Service Industry)에서의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일자리 중 5.3%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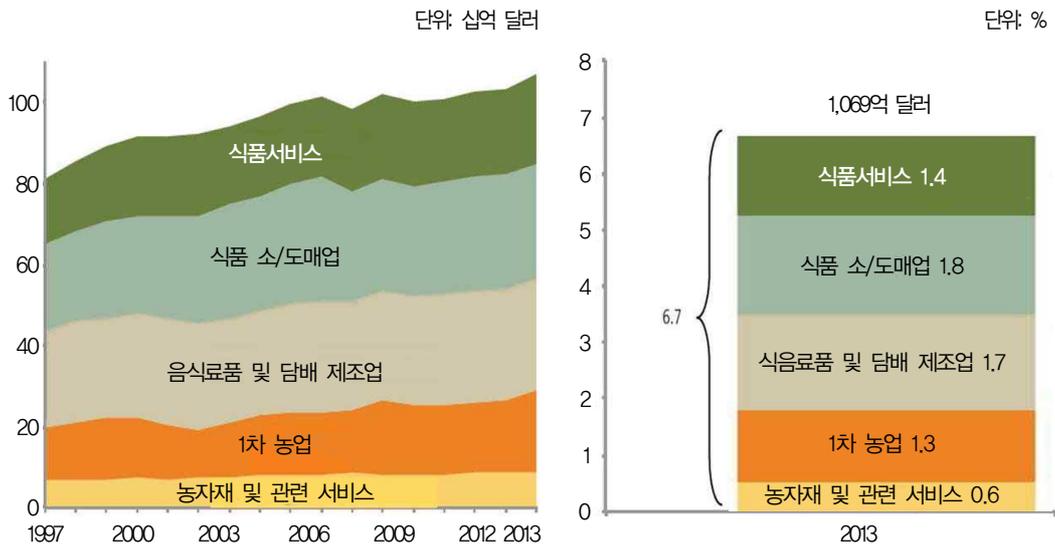
2013년 캐나다 농산물과 농식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60억 달러와 343억 달러로 세계 5위 농산물 수출국이자 세계 6위 농산물 수입국이다. 캐나다는 EU,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와 농산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캐나다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50.8%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 수입량의 61.4%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2.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GDP와 고용

### 2.1. GDP와 고용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산업은 전체 GDP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산업 중 7번째<sup>1)</sup>로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 2013년 농업과 농업 식품 산업에서는 총 1,069억 달러의 GDP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3.1%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1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문의 각 산업별 GDP 기여도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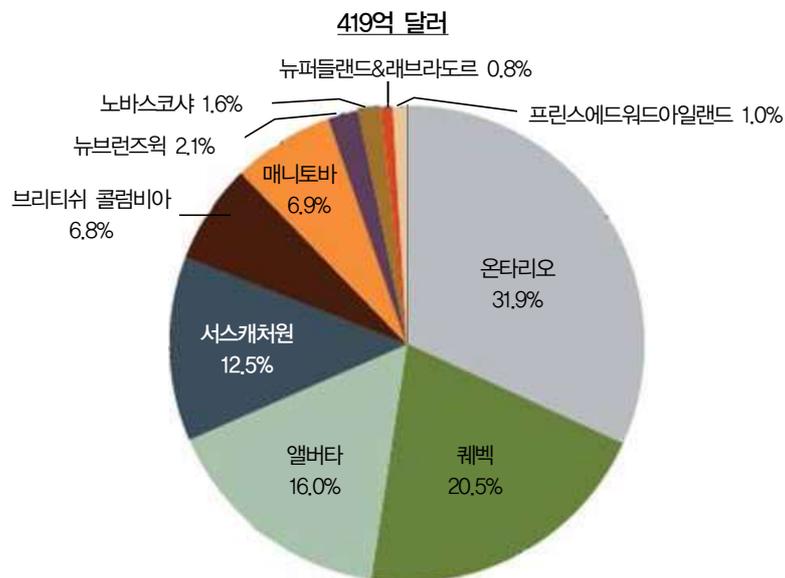
1) 첫 번째는 금융업, 두 번째는 공업, 세 번째는 광업 등이 있음.

농업과 농식품부문을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식품도매 및 소매산업(Food Retail&Wholesale)에서 총 282만 달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GDP의 1.8%로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식음료 및 담배(Food, Beverage and Tobacco, FBT) 산업이 277만 달러로 1.7%를 차지하여 그 뒤를 따른다. 1차 농업(Primary Agriculture)은 총 200만 달러(GDP의 1.3%)를 창출하여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분야에서 4번째로 GDP 기여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자재 및 관련 서비스산업(Input&Service Suppliers)이 전체 GDP의 0.6%를 차지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 부문의 산업별 GDP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차 농업이 캐나다 GDP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0년 초반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농업과 농식품산업은 시장접근성과 기후여건 등으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그리고 앨버타(Alberta) 3개 주에서 농업과 농식품산업 GDP의 70% 이상이 창출하고 있다.

그림 2 2013년 캐나다 농업 및 농업 식품 산업 GDP 대비 지역별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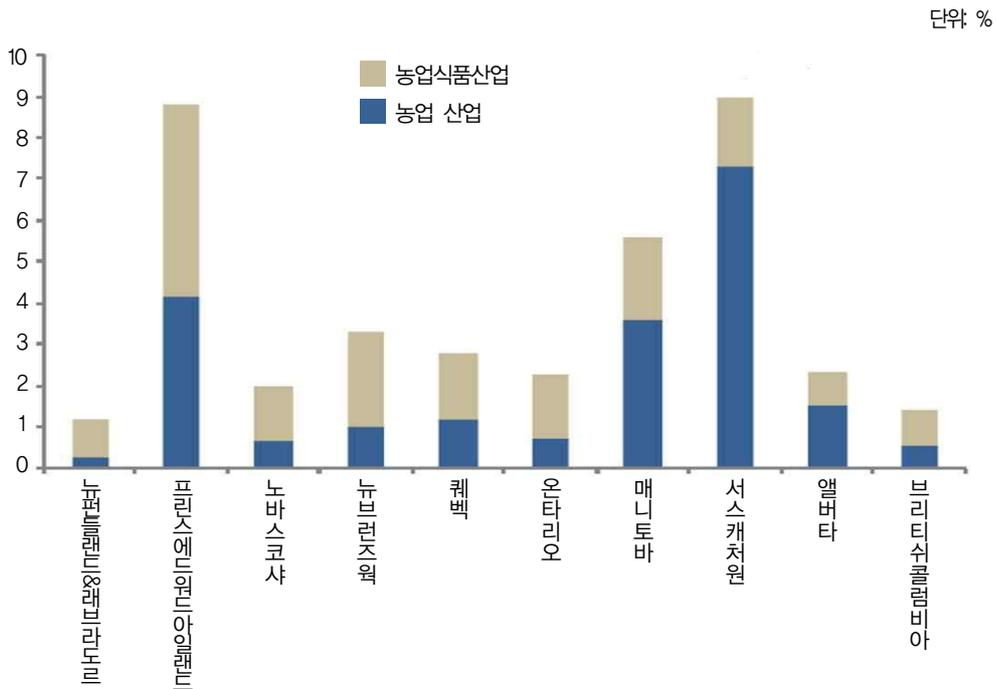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2013년 농업과 농식품산업 GDP 대비 지역별 기여도는 온타리오와 퀘벡이 전체의 52.4%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 GDP의

31.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농식품산업에서의 GDP 창출이 1차 농업의 GDP 창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외 퀘벡과 앨버타 지역은 농업과 농식품산업 GDP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각각 20.5%와 16.0%를 차지한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의 농업과 농식품산업은 지역 GDP에 각각 9.0%와 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매니토바(Manitoba), 서스캐처원, 그리고 앨버타에서는 1차 농업이 식품 가공 산업보다 지역 GDP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은 식품가공산업이 1차 농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2013년 지역별 GDP에 대한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2013년 지역별 GDP에 대한 농업 및 농식품산업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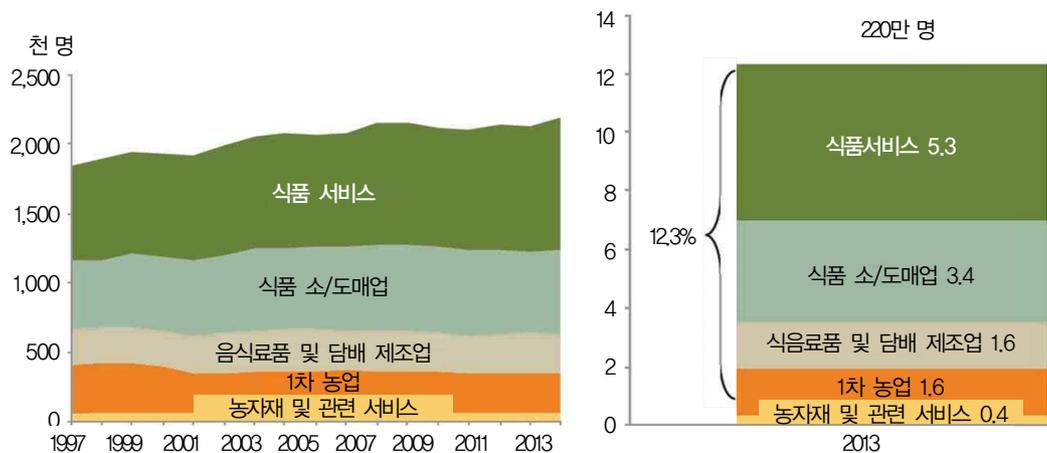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발전은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 큰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2013년에는 총 22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고용자 수의 12.3%에 해당된다. 식품서비스산업과 식품 도매 및 소매업의 일자리창출 비중은

다른 농업과 농식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고용 창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서비스산업, 식품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1차 농업의 2013년 고용창출은 전년(2012년) 대비 각각 5.2%, 4.3% 그리고 1.1% 증가했지만, 식음료 및 담배 제조업, 그리고 농자재 및 관련서비스는 각각 4.3%와 1.1% 감소하였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식품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는 총 94만 5,000명으로 농업 및 농식품산업에서 가장 많은 고용비율(5.3%)을 차지하고 있다. 1차 농업에는 총 28만 5,7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고용자 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1차 농업 종사자는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산업화와 농업생산 기술발전 등으로 1차 농업 종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식음료 및 담배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총 28만 4,400명으로 전체 고용자 수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식품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는 캐나다 전체 고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그림 4>는 2013년 캐나다 전체 고용자 수 대비 농업과 농식품산업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2013년 캐나다 전체 고용자 수 대비 농업 및 농업 식품 산업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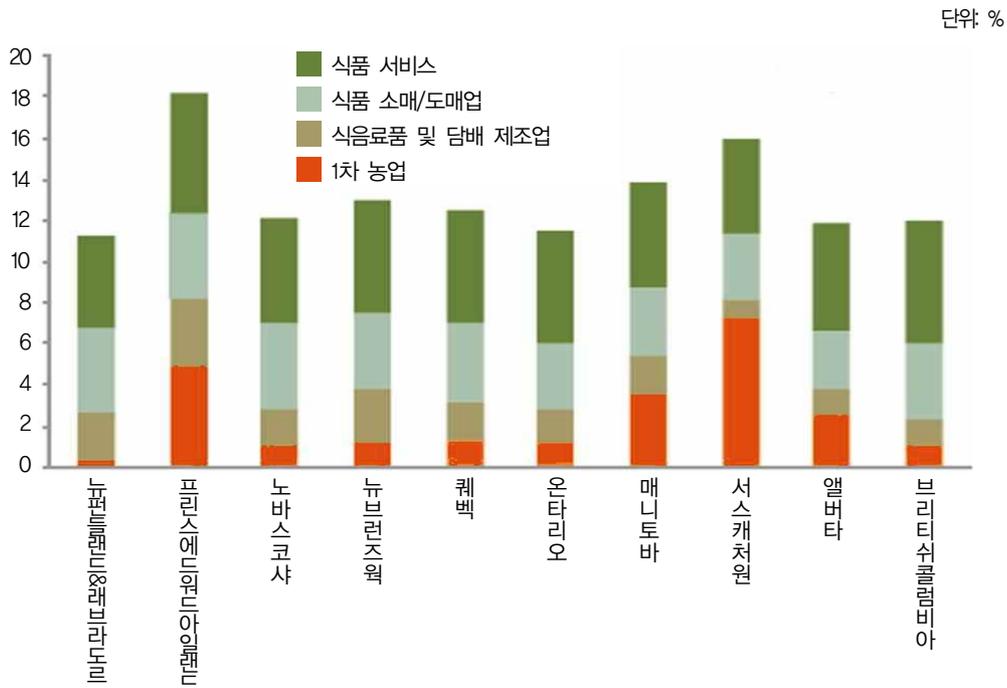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산업 종사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앨버타 지역에서 전체 종사자 수의 각각 35.1%, 22.9% 그리고 15.0%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높다. 특히, 앨버타에는 농업과 농식품산업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18.4%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며,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르(Newfoundland and Labrador)는 오히려 12.1%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농식품부문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식품서비스 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품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스캐처원 지역에서는 1차 농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 지역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종사자 수의 7.2%를 차지한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와 매니토바는 식품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차 농업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5>는 2013년 캐나다 지역별 농업 및 농식품산업 고용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2013년 각 지역별 농업 및 농업 식품 산업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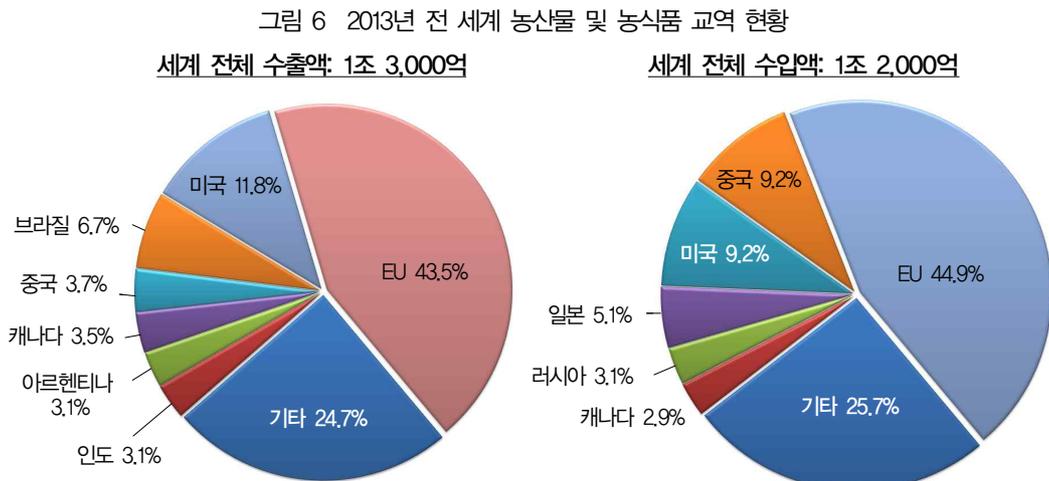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 2.2. 농산물 및 농업 식품 교역 연망

캐나다는 유럽연합(EU), 미국, 브라질, 그리고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농업 수출 대국 중 하나이다. 2013년 전 세계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규모는 약 1조 3,000억 달

러로 전년대비 약 1,000억 달러 상승하였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농산물 및 농업 식품 수출의 43.5%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한 수출국(경제권)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브라질, 중국 순이며,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각각 11.8%, 6.7%, 3.7%를 수출하였다. 캐나다는 2013년에 총 46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및 농업 식품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농산물 및 농업 식품 수출량의 3.5%에 해당한다.

2013년 전 세계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량은 유럽연합(EU, 44.9%), 중국(9.2%), 미국(9.2%), 일본(5.1%), 러시아(3.1%)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이다. 캐나다는 2013년에 총 343억 달러의 농산물 및 농식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농산물 수입량의 2.9%에 해당한다. 다음 <그림 6>은 2013년 전 세계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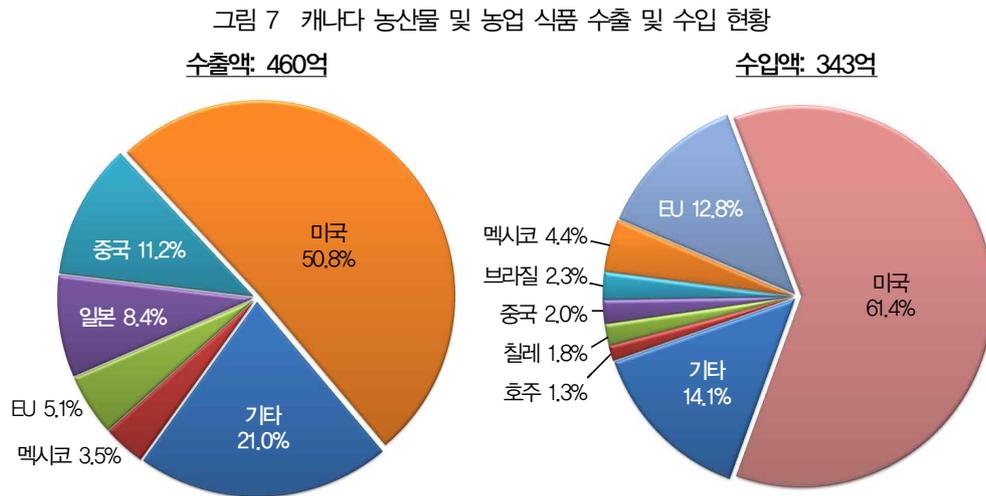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수출량의 50.8%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통적으로 상호 교역이 활발하다. 특히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캐나다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11.2%), 일본(8.4%), 유럽연합(EU, 5.1%), 멕시코(3.5%)로 캐나다 전체 농산물 및 농업 식품 수출량의 28.2%를 수출하고 있다.

2013년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액은 총 343억 달러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브라질 등이다. 캐나다는 2013년에 미국으로부터 총 210

억 달러의 농산물 및 농업 식품을 수입하여 캐나다 전체 농산물 수입량의 61.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440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량의 12.8%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대비 약 10.7% 상승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멕시코, 브라질, 중국, 칠레 그리고 호주로부터는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량의 10.5%를 수입하였다. 다음 <그림 7>은 2013년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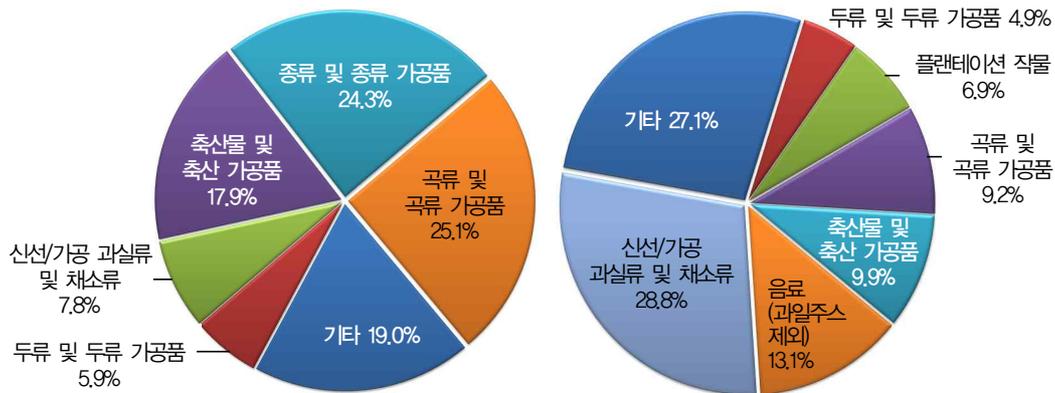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품목별 교역현황은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Grain & Grain Products)의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2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종류 및 종류 가공 식품(Oilseeds & Oilseeds Products)이 전체 수출량의 24.3%를 차지하여 2번째로 수출이 많은 품목이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Live Animal, Rea Meat & other animal products)이 17.9%로 그 뒤를 따른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으로 가장 많은 두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270억 달러의 두류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신선 및 가공 과실류와 채소(Fresh & Processed Fruit & Vegetables)이며, 이는 전체 캐나다 농산물 수입량의 28.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과일주스를 제외한 음료가 13.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9.9%), 곡류 및 곡류 가공품(9.2%), 플랜테이션 작물(6.9%)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었다. 다음 <그림 8>은 2013년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 수출 및 수입의 품목별 교역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2013년 캐나다 농산물 및 농업 식품 품목별 교역 현황  
 전체 수출액: 460억      전체 수입액: 34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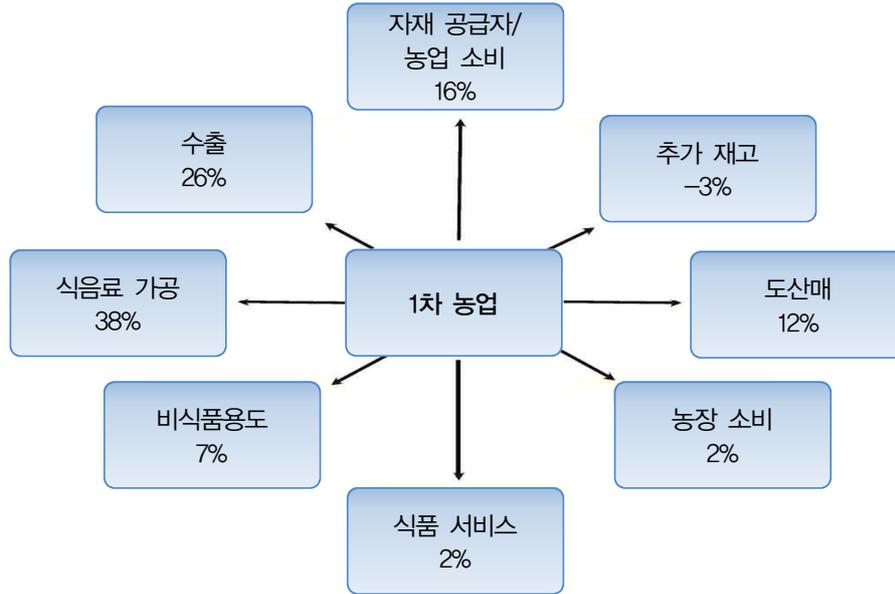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 3. 농가 재정

캐나다의 1차 농업은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시스템의 토대이며, 농업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농업 생산자들은 이러한 공급망을 통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차 농업의 발전은 농자재, 식품 가공, 식품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식품 서비스산업 등 모든 공급망의 구조와 성과에 영향을 준다. 최근 캐나다 농가 소득은 곡물 및 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농가의 순수익은 정부의 농업 보조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캐나다 전체 농업소득(Total Farm Market Receipts)은 총 522만 달러로 2003년에 비해 약 230만 달러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농업 소득을 살펴보면, 곡물과 종류(Grains and Oilseeds) 그리고 특용 작물(Special crops)을 생산한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가금류 및 계란, 과일, 채소 그리고 축산농가의 농업소득은 감소하였다. 곡물과 종류를 생산한 농가의 경우 2013년에 총 209억 달러의 농가소득을 올려 2003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전체 농업소득의 40.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소득을 차지하였다. 특용작물 생산 농가는 총 22억 달러의 농업소득을 올려 2003년 대비 약 2배 이상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전체 농업소득의 4.2%를 차지하였다. 축산 농가들은 총 1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며, 캐나다 전체 농업소득

그림 9 캐나다의 농업 생산 분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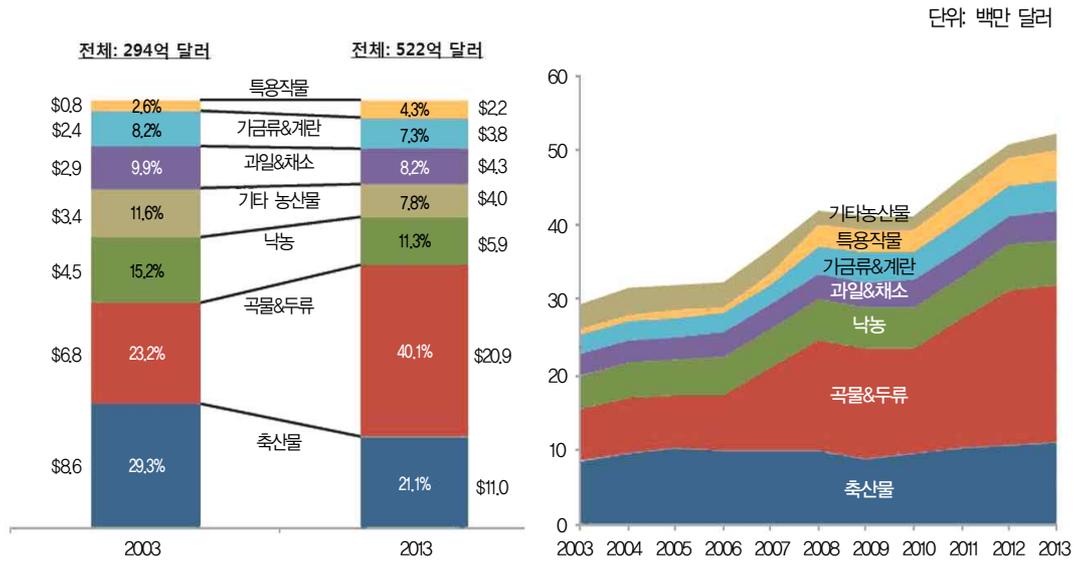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곡물과 종류 생산농가의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농업 평균소득보다 약 29.2% 높았다. 2013년 곡물과 종류생산 농가의 소득이 높았던 가장 큰 원인은 작황 호조와 전반기의 높은 시장가격이었다. 소 사육 농가는 높은 소 가격으로 인해 4년 연속으로 높은 농업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며, 돼지 사육 농가의 소득 또한 높은 돼지가격으로 인해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특용작물 농가의 경우 두류의 작황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17.4% 많은 소득을 올렸다.

지역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13년 프레리(Prairies)지방에서는 농업소득의 절반(57.6%) 이상이 곡물과 유지종자(Oilseed)의 판매로부터 나왔다. 온타리오 지방 또한, 곡물과 유지종자가 농업 소득의 가장 큰 원천이었으며, 전체 농가 소득의 28.4%를 차지하였다. 퀘벡에서는 낙농 산업이 전체 농업 소득의 2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와 애틀랜틱지방(Atlantic region)에서는 과일과 채소로부터의 소득이 그 지방 전체 농업 소득의 각각 29.4%와 32.3%를 차지하였다. 다음 <그림 10>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전체 농업소득 대비 품목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전체 농업 소득 대비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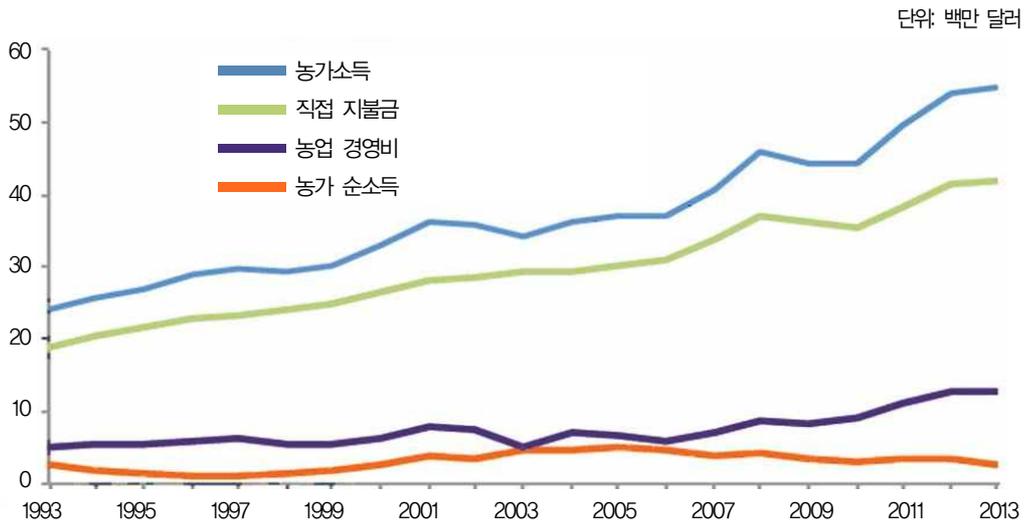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의 농가소득(Farm Cash Receipts)은 농업소득(Farm market Receipts)과 정부의 농업 직접지불금(Direct program payment)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캐나다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0% 상승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의 12.0%와 8.3%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2013년 농업경영비(Net Operation Expenses)는 전년에 비해 소폭(1.8%) 상승 하였으며, 이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증가한 반면 비료가격이 크게 낮아진 결과이다. 정부의 농업직접지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피해를 돕기 위한 보조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은 최근 몇 년 동안 농업시장의 상태 호조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 약 21.2% 감소하였다.

2012년 캐나다 농가의 평균소득은 6만 7,000달러이었으며, 해가 지날수록 전체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6%이며, 이는 2007년에 비해 약 45.2% 상승한 것이다. 지역 별로는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그리고 노바스코샤(Nova Scotia) 지방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스캐처원은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가당 소득(Operating income per Farm)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앨버타와 퀘벡의 농가당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쉬 콜롬비아는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낮은 농가 경영비를 지출하였다. 정부의 직접

그림 11 캐나다 농가 소득(199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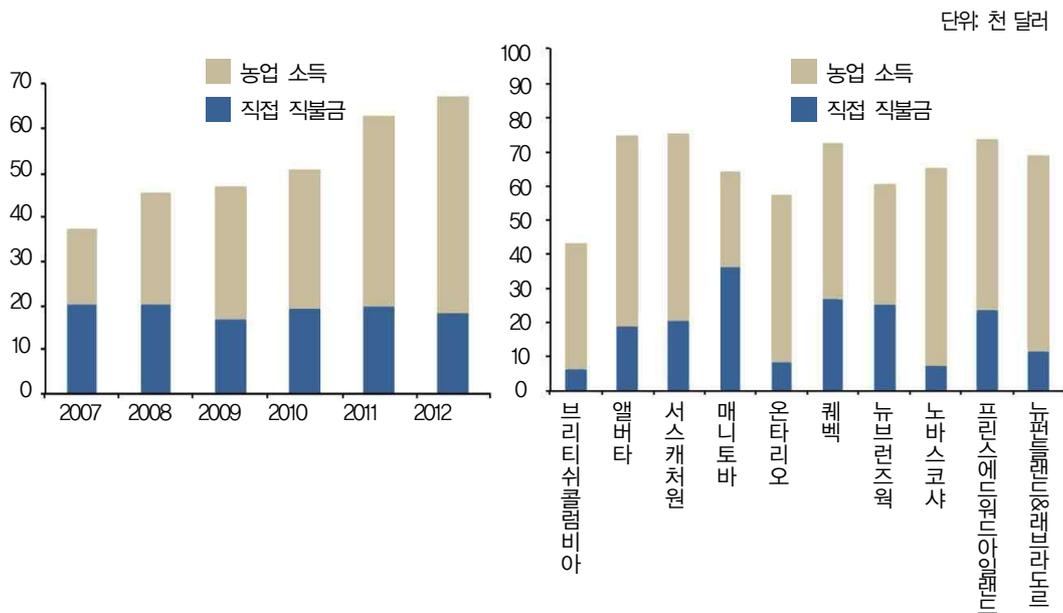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지불금 규모는 각 지자체의 여러 다양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농가들이 가장 낮은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았으며,

그림 12 캐나다 지역별 농가 소득 현황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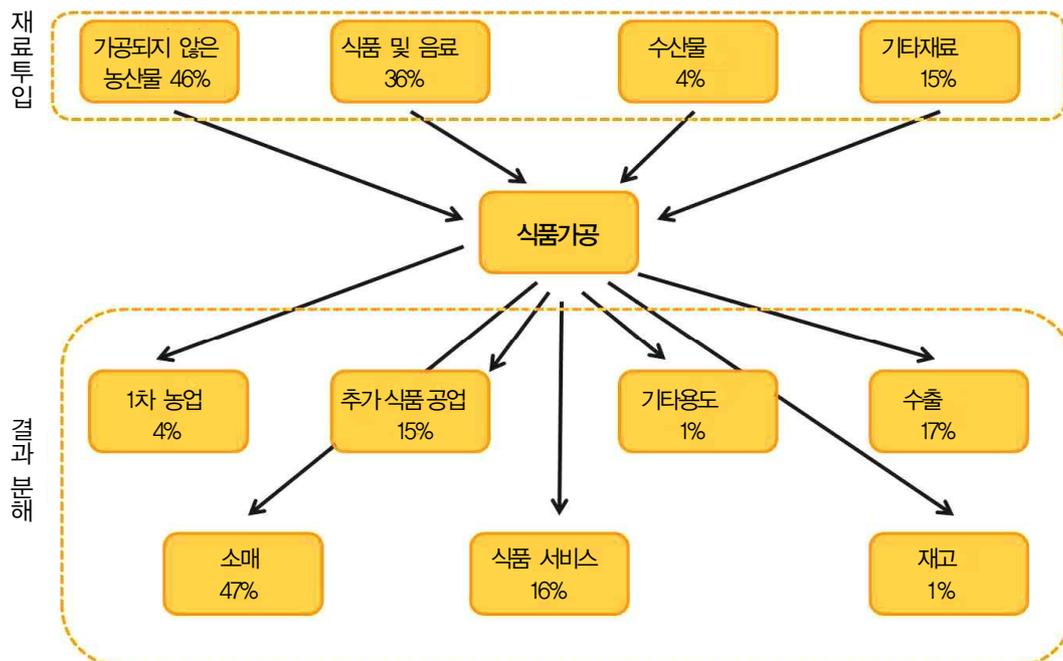
반면에 매니토바 농가들은 가장 높은 직접직불금을 지급 받았다.

캐나다 농가당 평균소득은 농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캐나다의 농업 총 매출이 1만~10만 달러 미만인 소농은 평균 2,700달러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농가들은 43만 3,000달러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대부분의 대농은 전체 농가소득의 73.0%를 농업 소득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나머지 27.0%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가금류 및 계란, 그리고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2012년에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기록하였고, 소, 과일, 견과류를 생산한 농가들은 가장 낮은 농가소득을 기록하였다.

#### 4. 식품 가공산업

캐나다의 식품 가공산업은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시스템에 중요한 요소이다. 식품 가공산업을 통해 캐나다의 농산물은 더욱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변형되어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

그림 13 캐나다 식품 가공 투입재 및 유통경로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농산물(Raw Agricultural Commodities)이 대부분이며, 전체 식품가공 투입재의 46%에 해당한다. 또한 1차 가공된 식품 또는 음료는 전체 식품가공 투입재의 36%에 해당하며, 수산물 4%, 이외 기타 재료가 15%를 차지한다. 캐나다에서 가공된 식품의 47%는 소매업체, 그리고 16%는 식품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식품 가공품의 약 17%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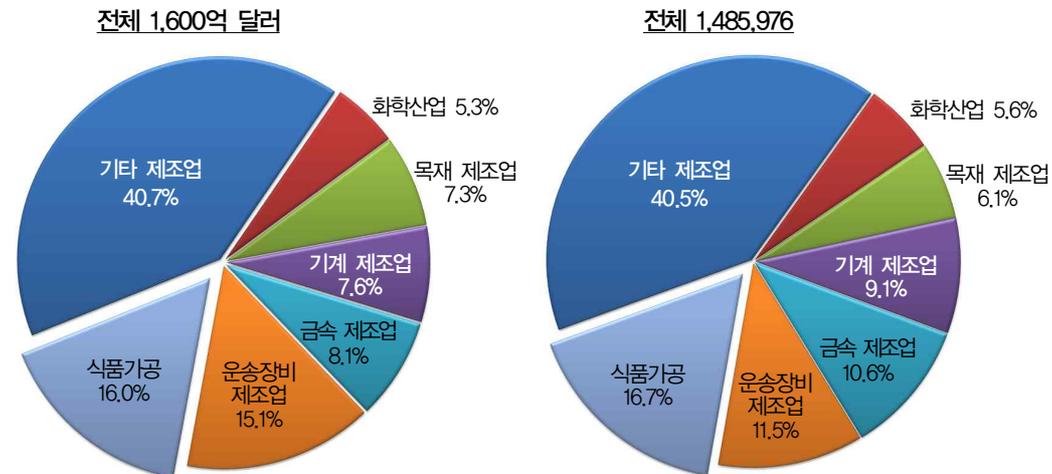
식품 가공산업은 캐나다 제조업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3년 제조업 GDP는 1,680억 달러 규모이었다. 그 중 식품 가공산업은 총 269억 달러를 창출하였으며, 제조업 GDP의 16.0%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 GDP에서 가장 큰 기여를 나타냈던 운송장비 제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2013년에는 254억 달러를 창출하였으며, 그 비중은 15.1%로 감소하였다.

캐나다의 식품 가공업의 대부분의 공장은 온타리오(34.6%)와 퀘벡(24.5%)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에서는 제과와 축산 가공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외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애틀랜틱 지방, 그리고 앨버타에도 캐나다 전체 식품 가공 공장의 각각 16.8%, 10.1%, 그리고 7.8%가 설립되어 있다.

2013년 캐나다 제조업 종사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식품 및 음료 가공업 종사자 수는 24만 7,996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의 약 16.7%에 해당한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축산 가공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식품 및 음료 가공업 종사자의 2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빵 및 옥수수 가공업 종사자

그림 14 제조업 부문별 GDP 및 고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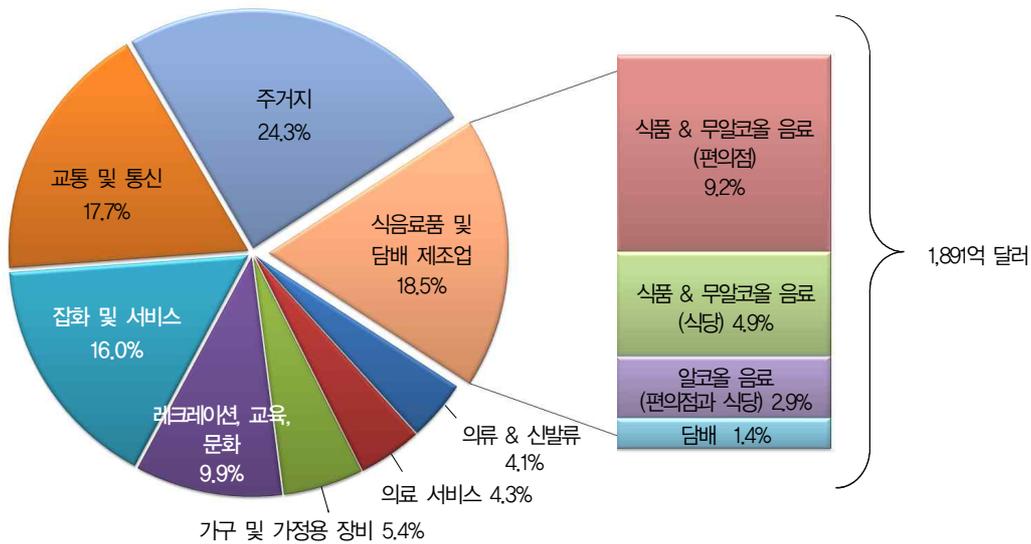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수가 전체의 17.8%로 그 뒤를 따른다. 다음 <그림 14>은 캐나다 제조업 부문별 GDP 및 고용분포를 나타낸다.

## 5. 소비동향

캐나다 소비자들은 2013년에 약 1조원을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하였으며, 그 중 1,891억(18.5%)을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소비에 지출하였다. 전체 식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 소비 중 식당의 식품 및 무알코올에 소비액은 약 946억 달러로 전체 소비의 9.2%를 차지하였으며, 레스토랑의 식품 및 무알코올 지출이 501억 달러로 4.9%를 차지하였다. 주류와 담배 소비는 총 444억 달러이며, 전체 소비의 각각 2.9%와 1.4%를 차지하였다. 캐나다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지출은 주거비용이며 2013년에 총 2,480억 달러를 지출하여 전체 소비의 24.3%를 차지한다. 이외 교통 및 통신비는 전체 소비의 17.7%를 차지하며, 잡화 및 서비스에 16.0%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15>은 캐나다의 소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5 2013년 캐나다 소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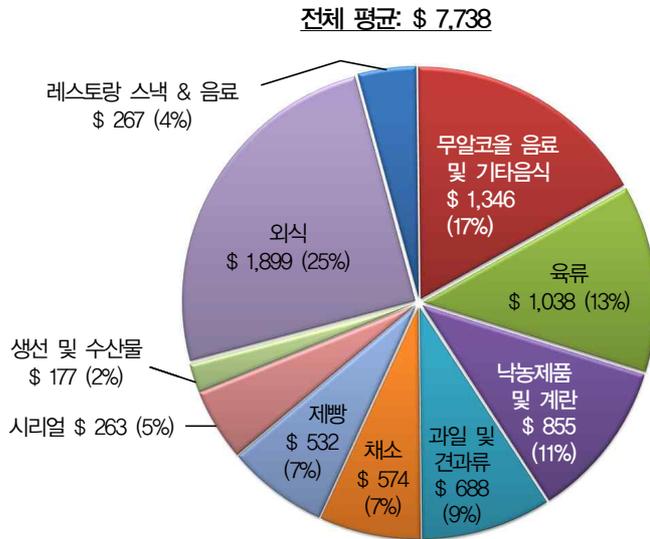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 소비자들의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다양한 범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인당 평균 식료품 지출은 약 7,738달러였으며, 이는 편의점 또는 식

당에서의 식료품 구매와 레스토랑에서 외식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레스토랑에서의 외식비는 캐나다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식료품 지출액의 25%인 1,899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레스토랑에서의 스낵과 음료 또한 1 가구당 267달러(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에서의 가장 많은 식료품 지출 품목은 무알코올 음료와 기타 식료품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와 낙농제품의 지출이 전체 소비의 각각 13%와 1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그림 16>은 캐나다 가정의 식품 지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 캐나다 가정의 식품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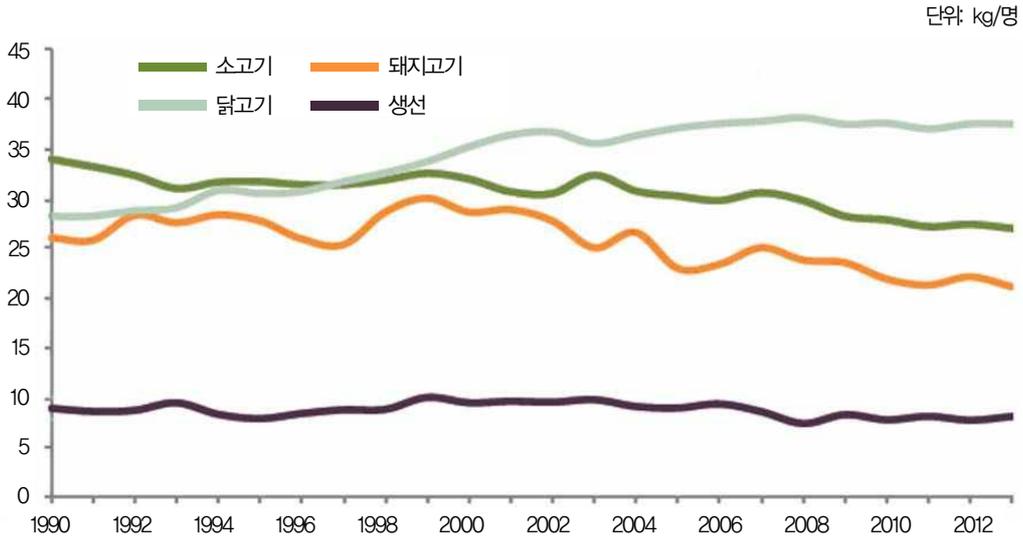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2013년 캐나다의 소고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7.1kg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약 1.5% 감소하였다. 돼지고기의 연간 소비량 또한 감소추세로 전년대비 4.5% 감소한 21.2kg이었다.

닭고기의 연간 소비량은 1997년 이후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의 연간 소비량을 추월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2013년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37.6kg으로 전년과 비슷한 소비량을 나타냈다. 다음 <그림 17>은 캐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의 1인당 연간 소비동향이다.

그림 17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의 연간 1인당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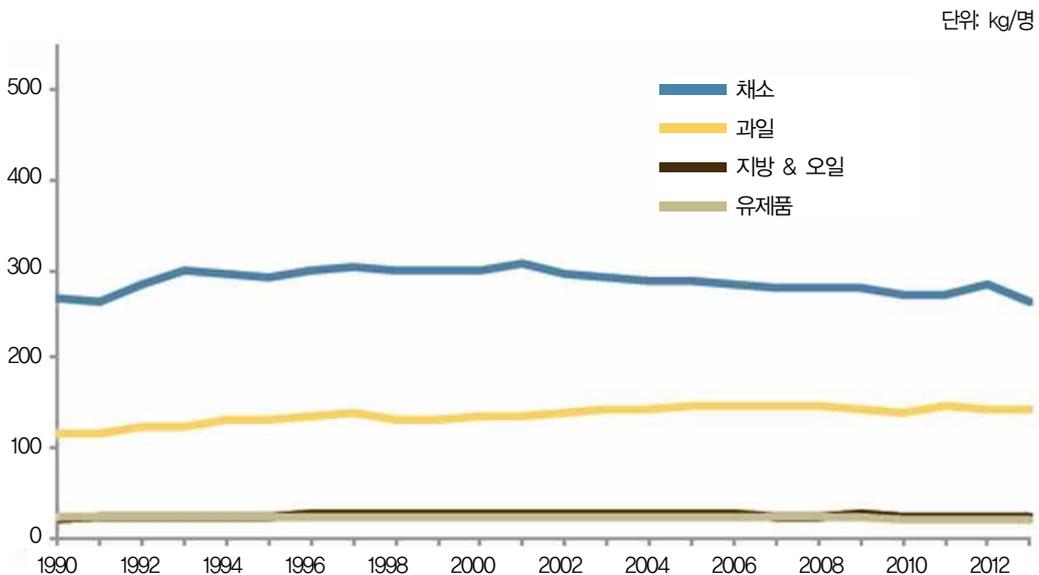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캐나다에서는 과일과 지방 및 기름(Fat and Oils), 그리고 유제품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채소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262.2kg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18 2013년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현황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5).

과일의 연간 소비량은 143.7kg으로 전년보다 소폭(0.7%) 상승하였다. 지방과 기름의 연간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상승한 25.8kg이며, 유제품은 0.2% 감소한 21.3kg이다.

다음 <그림 18>은 캐나다 과일, 채소, 지방 및 기름, 그리고 유제품의 1인당 연간 소비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동훈·최양규. 2012.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현황”.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대회·임정빈. 2014. “캐나다 농산업 및 교역 현황”.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5.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 Martin S. Beaulieu. 2014. *Demographic Changes in Canadian Agriculture*. Canadian Agriculture at a Glance.

### 참고사이트

캐나다통계청 (Statistic of Canada)